

[종합·해설]

■ 권오규 경제팀 공식 출범 의미

‘시장’이 우선 ‘분배’도 함께

신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취임함에 따라 새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권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의 선택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시장을 중시하면서도 민생 경제의 안정에도 주력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8일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남뉴스

◇가시정책 변화 없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시정책 방향과 관련해 “잠재성장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친 권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뒀다.

출중제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 유도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민생경제 안정 주력

그는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초점=권 부총리는 “고용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접점임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기업의 경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게도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책이 논의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 안정=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차례 나타난 지표 경기와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데 따른 민생경제 안정도 새 경제팀의 주요 정책과제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문제가 단기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한꺼번에 문제를 풀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인식이 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지연돼온 노사관계 입법이나 비정규직 입법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도 차질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자룡 한칼 쓰듯 세무조사 않겠다”

전군표 국제청장 “기업 부담되는 조사 지양”

“도끼자루를 휘두르듯이, 조자룡의 한칼 쓰듯이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8일 취임한 전군표 신임 국제청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세무조사가 예산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국제청 기자실에 들러 세무조사 등 향후 세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 청장은 “원래 세무조사라는 게 잘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마찰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최대한 줄여 마찰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앞서 서로 공부하고 연구한 뒤 상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고유가, 환율문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적(패널티)을 강하게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옥석을 가려 그에 상응하게 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얘기다.

표현이다. 그는 “납세자의 47%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과세미달자”라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조세당국이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누진세제의 기본정신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거둬들이는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인 만큼 조세행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재임기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성적이 있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남뉴스

“분단책임 주변 4대강국 한반도 통일 지원 해야”

우리당 정동영 전의장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사진)은 17일 분단에 책임이 있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의장은 이날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에서 한반도 분단은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통치에서 비롯됐으며 일본의 식민지배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의장은 20세기에 이을 4대 강국은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를 만든 세력이었지만 21세기에 이을 국가들은 한국의 동맹국, 혹은 우방국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진정한 친구라면 한민족이 겪고 있는 냉전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정 전의장은 베를린 자유대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이들 4대 강

전남 ‘김대중기념관’ 건립 재추진

박준영지사 민선4기 추진 151개 사업 결정

전남에 전시킨센터(JEXCO)를 설립하고, 서남해안고속도로를 진도까지 연장하는 등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54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35대 박준영 전남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간보고회’를 갖고 새로 마련된 31개 시책 54개 사업을 포함, 모두 70개 시책 151개 사업을 민선 4기 동안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남도가 추진하기로 한 주요 공약 가운데 신규사업은 ▲전남 전시킨센터 건립 ▲항공우주 사이언스 파크 조성 ▲면 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진도까지 연장 ▲갯벌 자원화 단지 조성 ▲한국 뱀 연구소 및 한방특구 조성 등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는 이와 함께 민선 3기 당시 공약사업이었다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김대중(DJ) 기념관 건립’을 민선4기 공약사업과는 별개로 또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이와 관련 “DJ기념관은 이 지역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업적을 기념관을 통해 그 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 지시사항 등으로 보완해 ‘제35대 박준영 도지사 공약’으로 최종 확정, 공약집을 발간·배포해 실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반기별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는 등 도정 역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산행안내 - A large section listing various hiking trails with details on location, difficulty,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itles like '청봉산악회', '광주한국산악회', etc.

곽내영고시학원 - Advertisement for a private academy offering various courses like '여름방학 특강', '국어/영어 수확', etc. Includes contact info and website.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 Advertisement for a police academy. Features '합격의 전당' and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 Advertisement for a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course. Mentions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특강 -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exam preparation course. Promotes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and '8월 1일 개강'.

김재규 경찰학원 - Advertisement for Kim Jae Gyu Police Academy.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김영대학면입학원 - Advertisement for a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enter. Mentions '당당하고 싶다면 평범하라!' and '8월 1일 개강'.